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 역대기 소개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서 강의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1, 역대기 소개입니다.

역대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이름은 Gus Konkel입니다. 역대기와의 인연은 레이몬드 딜라드(Raymond Dillard) 교수가 내 논문의 멘토였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논문은 히스기야에 초점을 맞추고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와 함께 역대하를 주로 다루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 중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를 쓴 스승에게서 역대기를 가져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의 교직 경력은 실제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있는 프로비던스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나는 1984년에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늙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녹화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비던스에서 은퇴한 후 약 10년 전 우리는 온타리오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McMaster Divinity College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직접 멘토링하고 이와 같은 강좌를 가르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책을 역대기라 부르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책입니다. 이름은 영어에서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장의 족보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고, 그 정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개신교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는 에스라-느헤미야서와 어느 정도 짝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보통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역대기 바로 다음에 나오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에스라-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 정확히 같은 말로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은 기원전 539년경에 공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더욱이 에스라-느헤미야와 역대기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항상 교회의 성경에 있었던 책, 즉 칠십인역이라고 부르는 책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의 성경이었습니다. 에스드라상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역대하 36장의 요시아 이야기로 시작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내용인 7장 33절부터 8장 12절까지로 끝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역대기와 에스라-느헤미야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을 형성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칠십인역에는 역대기가 있고, 첫 번째 에스드라가 있고, 두 번째 에스드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에스라-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단지 한때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긴 책의 일부였다는 이 생각은 이제 정당한 이유로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First Esdras는 히브리어 정경에 결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글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정경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참고문헌을 이차 정경으로 제쳐두었던 종교 개혁자들 역시 첫 번째 에스드라서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가톨릭 성서와 정교회 성서에서 그 단어를 발견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에스드라 첫째서는 역대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강조점을 갖고 있으며, 에스라-느헤미야서와는 다른 종류의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연구해보면, 이 책들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의 많은 오래된 논평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것들은 결코 하나의 단일 구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 주변의 예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첫 번째 에스드라도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글썄,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대기는 스룹바벨 이후 적어도 6세대 이전의 기록일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522년경 학개와 스가랴서에 등장한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족보에 나오는 역대상 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족보에는 적어도 여섯 세대가 더 있습니다.

실제 인간 생물학에서 한 세대는 약 20년입니다. 성경 연대기에서 한 세대가 40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광야에서 죽은 세대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40년은 우리 대부분이 가족을 시작하기에는 약간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20대에 더 많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의 족보에 반영될 실제 연도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스룹바벨로부터 약 120년 후가 될 것이며, 이는 대략 4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더 큰 역사 체계에서 400년은 대략 마지막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

이미 혼란에 빠져 있고, 머지않아 그리스의 영향으로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이었나요? 글썄요, 제롬은 그것을 크로니콘 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로니콘(chronikon)은 인간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인과 다른 사람들이 행한 특정 종류의 역사 기록을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크로니콘이 한 일은 가장 초기의 인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저술이나 다른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신과 인간이 서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결국 인간이 그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가 시대까지 그들이 원했던 세부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셋, 에녹.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연대기 작가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연대기 기록은 약 400년경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연대기는 예후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예후드 의 상태를 지도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후드는 페르시아인들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후트 국가의 경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여러 도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국가의 일부였던 모든 도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추측적입니다. 이 지도. 그러므로 그것은 서쪽으로 멀리 그랄까지 이르며, 그 이전 시대의 블레셋 영토에 가깝습니다.

사해의 한가운데인 엔게디 부근까지 갑니다. 그 시점에서 에두미아 전체 상태가 시작되는데, 이는 거의 이전 에돔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해 반대편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꽤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과 예후트, 암몬과 사마리아 사이의 적개심입니다.

이들은 특히 느헤미야의 사역에 매우 적대적인 경쟁 국가들이다. 따라서 연대기 작성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여러 면에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페르시아 국가인 예후드 (Yehud)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트 의 중심점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인데, 그것이 연대기 작가의 관심사이다.

예후드 의 다른 도시들에 대해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중단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국가, 즉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집단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연대기 작성자의 요점은 그들이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전체 책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역대기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 약속의 초점이 다윗의 통치 말기인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야훼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약속에 관해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깁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말씀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적 국가가 사라지고 다시는 부활하지 않을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유엔에 의해 부활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음, 그것은 사원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장과 29장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공개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나단이 그에게 준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축복은 그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보좌가 아니므로 여호와의 나라의 보좌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인들은 이 작은 예후드(Yehud) 국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닦칠 수 있는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 장치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인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작가에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연대기 기자에게 이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역사입니다. 사실, 역대기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역사서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V'rim이라고 부른다. Hayyimim, 시대의 사건, 역사.

따라서 이것은 이 역사에 대한 예언적 기록, 즉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에서 발견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연대기 작가 자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연대기 작가는 이 역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Kings는 가장 광범위하게 코드화되어 있지만, Kings에서 연대기 작가가 광범위하게 인용한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의 예언적 역사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연대기 작가가 때때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단어나 표현, 사건의 시간, 연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것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바빌론의 포로와 함께 죽은 정치적 국가가 아닌 야훼의 왕국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은 연대기 편찬자가 사용하고 있는 Kings의 버전은 우리가 1948년까지 가지고 있던 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해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가 해독되고 확인되어 출판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다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때때로 연대기 작성자가 우리 버전의 Kings와 다를 때 그의 버전의 Kings가 우리 버전의 Kings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예언서들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세기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은 그것이 다양한 컬렉션으로 시작되었으며 Kings의 버전이 두 개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초판은 늦어도 히스기야 시대에 나온 것 같아요. 따라서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된 열왕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전하여 오늘날 마소라 본문과 같은 내용이 되었습니다. 연대기에는 다른 출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출처에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쓰여진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사가 사실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것이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것이 야훼 왕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그 시대에 예후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역사서이다.

그것은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이야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공합니다. 연대기가 가정하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을 매우 강력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성경에서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담, 셋, 에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그 시점에서 그다지 나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난 아담이 누군지 알아요.

네, 세스가 누군지 기억나요. 그는 가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에녹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글썄요, 제롬이 적절하게 말했듯이, 역대기를 알기 전까지는 성경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역대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개념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요 요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시편 105편을 인용할 때만 야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맨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예후 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바로 복음서, 특히 바울에서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가서 우리는 이 점에 관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연대기 기사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해 말할 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성경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은 역대기의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책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역대기에서 강의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세션 1, 역대기 소개입니다.